저지에 공공수장고 개관

4개 수장실·다목적실 갖춰
미술관 수장공간 부족 해소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작품 수장전용 시설인 공공수장고가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생겼다. 제주도는 4일 현지에서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개관식을 실시했다.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931㎡ 규모의 공공수장고는 입체·평면 수장실 4실을 비롯 다목적실, 훈증실, 기계실 등을 갖추고 있다. 회화 작품을 기준으로 1500여점까지 수장 가능해 도내 공공 박물관과 미술관 수장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공수장고 개관에 앞서 제주도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과 제주도립미술관 소장 작품 120점을 이관했다. 6월 중에는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 총무과 소장 작품 202점을 추가로 옮겨올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4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서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개관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고재만의 제주어그림회관

<155>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 "ᄒᆞ루긴 성산 앞바당 동펜 하늘서 구름덜이 막 몰려왓주. 하늘엔 거멍ᄒᆞᆫ 구름덜이 고득ᄒᆞ엿고, 이디저디서 펀게가 '핀찍핀찍' 천둥이 '우르르쾅쾅' 경ᄒᆞᆫ후제 또시 '우르르쾅쾅' 천동이 울련게."

ᄋᆞᆫ멩이 : "하르바님- 게민 왕생인 하늘서 젓어뎅기단 어드레 간마씀."
(ᄋᆞᆫ멩이는 봉황새가 궁금ᄒᆞ연 거쓴 들없저.)

좀 녜 : "ᄋᆞᆫ멩이야- 그 왕생인 저디 먼 하늘서 펜한ᄒᆞ게 잘 살암실 거여게."

*** 제주어 풀이**

*ᄒᆞ루기(ᄒᆞ로기, ᄒᆞᆫ번제) : <이름>지난 며칠 전의 하루. 며칠 전 어느 날 또는 때. *거멍호다 : <그림>거멓다. '가멍ᄒᆞ다'의 큰 말. '꺼멍ᄒᆞ다'의 여린 말. *또시(또로, 다시, 도로, 토로) : <어찌> 다시. 또. 도로. *젓어뎅기다 : <움직>여기저기 휘저어 다니다. *젓어뎅기단 어드레 간마씀 : 여기저기 다니다 어디로 갔어요? *거쓴 들없저 : 얼른 듣고 있다. *펜한ᄒᆞ게 잘 살암실 거여게 : 편하게 잘 살고 있을 거야.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이름>:대이름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소>:때가림소/<익은말>:익은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1991)

이형상 제주목사에 띄운 편지글 한자리

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김익수 한학자 탈초 번역
218통 망라 3집까지 출간

"작년 최비(崔裨)가 돌아와 주신 편지를 받고 여전히 저절로 입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 실의에 빠졌다가 조용한 가르침을 받아 두루 간절히 위로되고 씻겼습니다. 하물며 그 백 개의 감귤은 모두가 평소의 정으로 주는 물건임에야, 놀랍게도 입에서 병을 없애주고 신선하게 변화시키는 느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1703년 2월 그믐, 어느 유배인이 그에게 보낸 편지(사진)다. 편지글 곳곳에는 그를 향한 흠모가 느껴진다. '항상 흐르는 시냇물처럼 밥 먹고 숨 쉴 때도 조금도 잊히지 않습니다'란 구절이 뒤이어 따르는 걸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유배인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제주목사를 지낸 이형상(1653~1733)이다. 이형상은 제주목사만이 아니라 영광군수(1706)로 재임하는 중에도 유배인들을 자신의 녹봉으로 부양했고 스스로 가난 속에서 지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소장 자료인 이형상 목사 관련 간찰 218통에 대한 탈초·번역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김익수 국사편찬위원회 제주시 사료조사위원이 탈초·번역을 맡아 '이별의 한 된 수심, 넓은 바다처럼 깊은데'(2017), '목도에서 경쇠 치던 벗에게 보낸 편지'(2018)에 이어 최근 '빼어난 절역(絶域)에서의 유람은 평생에 제일이더라'를 출간했다.

이번 3집에 수록된 간찰은 77통에 이른다. 대부분 사돈 간에 오고간 내용이고 유배인 간찰도 일부 들어있다. 탁월한 재능과 학식을 바탕으로 빼어난 인물들과 교류하고 인척을 맺었던 면모를 확인하게 된다. 비매품.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아이들 무대 위에 펼치는 열정

제주연극협회 청소년연극제
6월 17~20일 7개 고교 경연

제주 청소년들이 무대 위에 열정을 풀어놓는다. 제주연극협회가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펼치는 제22회 제주청소년연극제다.

제23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제주예선대회를 겸한 이번 무대에는 모두 7개 고교가 참가 신청을 했다. 경연작품은 ▷6월 17일=영주고등학교의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제주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탑과 그림자' ▷6월 18일=남녕고등학교의 '방황하는 별들', 신성여자고등학교의 '작은 할머니' ▷6월 19일=세화고등학교의 '무지개는 존재할까', 제주여자고등학교의 '살인랩소디' ▷6월 20일=표선고등학교의 '현진건을 만나다' 순으로 정해졌다.

공연장은 세이레아트센터(오후 2시), 한라아트홀 다목적홀(오후 5시) 두 곳이다. 영주고, 남녕고, 세화고, 표선고는 세이레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나머지는 한라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최우수 수상팀은 오는 9월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 대회가 열리는 충남 예산시로 향한다.

앞서 지난해 제22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는 영주고등학교가 대상(국무총리상)을 차지하는 등 제주 대표팀이 단체상과 개인상을 휩쓸었다. 당시 영주고 연극동아리는 10대들의 혼란과 성장을 감각적으로 그려낸 '노란 달'로 단체 최고상에 이어 최우수 연기상, 우수 연기상, 연출상을 수상했다. 문의 010-9687-0031.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붓의 작가' 이정웅 작가 만남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이달 13일 오후 2시 붓을 그리는 이정웅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7월 14일까지 김창열미술관에서 연장 전시되는 '이정웅, 찰나의 미학' 전은 이 작가가 7년 만에 갖는 개인전으로 블루 시리즈를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이날 작가와의 대화에는 신항섭 미술평론가가 동석해 이정웅 작가의 작품세계를 청중들과 나눈다. 참가비는 무료로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30명)으로 신청받고 있다.

서예문인화총연합 회원전

제주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대표회장 양상철)는 이달 8~13일 제주도문예회관 1~3전시실에서 열네번째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족적 자존과 독립심, 제주사랑 정신과 풍광 등을 담은 150여점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첫날 오후 3시. 오후 5시부터는 제주오리엔탈호텔로 장소를 옮겨 제주서예문인화의날 기념식을 갖는다. 문화예술 특강, 올해의 작가상과 원로작가상 시상식이 예정됐다.

'문화의 원류…' 4판 발간

도서출판각은 1996년 초판을 찍어낸 송성대 전 제주대 교수의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개정증보판(4판)을 발간했다.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는 '제주인의 해민정신·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요해'로 출간됐지만 개정증보판인 2판부터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로 제목을 바꾸고 '제주인의 해민정신'이란 부제를 붙였다. 4판에서는 제주문화를 이웃한 일본과 중국과 비교해 설명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논거를 보충하고 각주도 풍성하게 달았다.

다시 보고 싶은 여성영화

제주여성영화제 20주년, 제주도여성회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한 '다시 보고 싶은 여성영화' 6월 상영회가 이달 20일 오후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상영작은 '우리들은 정의파다'로 정해졌다. 30년 전 남성중심의 어용노조를 뒤엎고 최초의 여성 지부장과 여성 집행부를 탄생시켰던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다. 50살 중년이 된 지금도 끝이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그들의 담담한 인터뷰가 담겼다. 문의 064) 756-7261.

나를 찾아 떠나는 설레임!
모아투어
748 2002
주말 : TEL 010-2949-2002
해외 : www.moatour.kr
NAVER 제주모아투어
일반여행업 제337호 / 기획영업 보증보험 2억원 가입업체

"몸과 마음을 녹이는 온천여행이라~~" 팁2,000엔 불포함 왕복 전세기
다카마쓰/고베 3일
출발일 6/14 9/21 999,000won
마쓰야마 3일
출발일 7/13 [단1회] 999,000won
시즈오카 3일
출발일 10/12 [단1회] 999,000won
제주-시즈오카-아타미-이즈고원-시즈오카-제주

"식지않는 베트남 열풍, 한국인 방문객 1위" 팁30불 불포함 왕복 전세기
하노이/하롱베이 5일
출발일 6/5(단1회,아침출발)
899,000won 4성급호텔
999,000won 5성급호텔
다낭/호이안 5일
출발일 6/27(단1회,아침출발)
799,000won 4성급호텔
출발일 6/27, 8/1, 8/4, 10/2, 10/5, 10/8
999,000won 5성급호텔
제주직항-다낭-투본강-후예-호이안-바나산-다낭-제주

"가장 가까운 유럽을 만나다" 왕복 전세기
러시아/블라디보스톡 팁불포함 30~40불
[3박4일] 7/17, 8/7 1,290,000won
[4박5일] 7/20, 8/10 1,390,000won
제주-블라디보스톡-점수함박물관-횡단열차-아무르강-하바로스크-제주

왕복 직항
"시각과 미각에 빠져들다"
말레이시아 5일
799,000won
싱가폴/말레이시아 5일
999,000won
6/6, 6/20, 7/11
7/25, 8/1, 8/15

"초원의 땅, 광활한 대자연의 감동" 왕복 전세기
몽골/울란바토르 4박5일
출발일 6/17(단, 1회)
1,290,000won 5성급호텔 2박+게르2박
출발일 6/17, 7/10, 8/7 (3회)
1,490,000won 5성급호텔 3박+게르1박
제주-울란바토르-전통씨름대회-전통맛사지-테를지-승마체험-역사박물관-제주

"세계자연유산 무릉도원,황홀경에 빠지다" 왕복 직항
장가계/천문산 5일
출발일 6/14,6/28, 7/12, 7/19,7/26,8/2 998,000won 팁30불, 비자35,000원 불포함
제주-장가계-천자산-천문산-유리잔도-보봉호수-장사-제주
백두산/북파/서파 4일
출발일 7/6,7/13,7/20,7/27 8/3,8/10,8/17,8/24 998,000won 팁40불, 비자35,000원 불포함
제주-심양-압록강-단동철교-북파-장백폭포-서파-심양-제주
계림/이강유람 5일
출발일 7/12, 8/9, 8/16, 8/23 특가 998,000won 팁30불, 비자35,000원 불포함
제주-상해-계림-이강-몽환이강쇼-우룡하뗏목-제주

(주)모아투어 제주시 노형동 1280-7(1층) / 대표이사 : 문인관
Yellow ID @모아투어 친구추가 하세요.
* 공통포함사항: 항공료,텍스,유가할증료(상품가에 포함),호텔,차량료,식대,입장료,기사,가이드팁(단,타사패키지는 현지에서 지불합니다),10명이상출발(15명이상시 인솔자동행), 단 타사 패키지는 상황에따서 달라짐 / VAT별도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하여 그에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불포함:개인경비,비자발급비(일부지역),기사가이드팁(일부지역)
국민관광상품권 가맹점
농협 748-2002-2002-08 (주)모아투어